

# 2020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특집 “코로나19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교회의 과제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

## 이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시대의 교회와 복음을 향한  
공격의 실체는 무엇인가?  
쇠퇴하는 교회에 처방은 없는가?

우리 시대의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관적인 도전에 영원한 복음의 진리로 답하다!

저자는 상당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 특히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한다. 어려운 주제들인데도 강연 형식으로 쉽게 씌어서 누구나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손봉호(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이 책을 읽고 나면 신학이 고답적인 사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동선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즐겁고 명쾌한 학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김희권(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권수경 지음

152x225mm / 332쪽 / 16,500원

# 목차

## 특집

### “코로나19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 4  
 코로나19 와 교회의 과제들 ..... 7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 10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 13

## 더 높은 책무성

[교회신뢰운동-좋은나무] 날마다 부활! ..... 15  
 [좋은사회운동] 4.15 총선과 공명선거운동 ..... 18  
 [좋은사회운동] 디지털 성 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20  
 [좋은사회운동] 윤리적투자운동을 소개합니다. .... 22

## 더 깊은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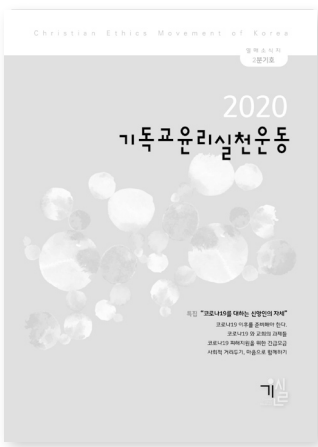
1~3월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 23

## 더 넓은 공공성

활동보고 · 활동계획 / 활동스케치(신입간사 인사) ..... 26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 주소록 ..... 27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이사 백종국(이사장) 정병오 이의용(부이사장) 강석창 권장희 권혁률 김경수 김양재 김정태 김중구 김홍섭 박재우 박종근 방선기 배종석 송인수 송태근 왕보현 유해신 이문식 임성빈 장동민 정현구 조수진 조주희 조홍식 주광순 지용근 최규창 한정화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위원장) 강영안 광상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용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종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바른가치운동본부장) 박선영(청년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이재민(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덕(상집위원) 김성경(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재민(공동위원장)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구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일(부대표) 이은규(사무국장) 권순홍 김중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팀장) 문형욱 윤신일 최진호(간사) **전국기윤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정읍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2분기호 통권 275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20. 5. 6  
 편집인 정병오 편집 최진호 디자인 송아현

보고기간 2020년 2월 12일~2020년 5월 1일 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라나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글 조성돈 교수(교회신뢰운동본부장)

코로나19의 영향은 크다. 우리생활 전반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후를 가늠해보고 대책을 세우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될 것이다

전에 일본에 NGO들을 탐방할 일이 있었다. 특히 NGO가 활발한 고베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서 한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고베 지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것에 대해 1995년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큰 재난을 겪고 나니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고, 그 여파가 시민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의 영향이 컸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었고, 공동체가 붕괴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았다. 이후에도 사고와 사건이 이어졌는데 그럴 때 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도와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코로나19의 사태에서 사람들의 경각심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보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지난 2월 23일 주일은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맞는 첫 주일이었다. 그런데 교인의 57%가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안 드렸다고 대답을 했다.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예배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 보면 아주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의 신앙고백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의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더 강조될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 주일성수의 개념이 바뀔 것이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주일성수는 순교의 각오로 지켜왔다. 최근에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보여준 스토리처럼 주일성수는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신앙적 원칙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려서 부터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온 바이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주일에 교회를 안 갔다. 특히 주일성수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고수해 왔던 고신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번 전염병이 돌면서 이곳들은 교회 안 간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더욱 그 비율이 높아갈 것이다. 아직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교인들의 마음에도 전염병의 여파로 교회를 안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 특히 주일예배 불출석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안 그래도 불출석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예배가 아닌 비정규예배로 대체하는 인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 같다.

안전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어도 너무 신학적인 과잉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일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아픈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각성은 오히려 더욱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 중 대체 예배를 드렸다는 인원이 62%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38%는 교회를 안 가거나, 못 가게 되었으니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쉬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62%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당을 떠나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야 할 것인지, 38%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빠지면서 곧바로 예배를 포기했다고 해야 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40%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가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이어갈 수 없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들에게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빨리 배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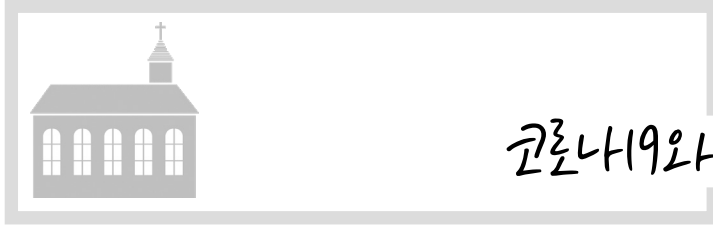
우리 교인들은 대체 예배에서도 교회중심으로 움직였다. 특히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대체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57%에 이른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개 교회에 소속감이 현저히 높다. 외국의 한 종교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향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이다. 이에 각 교회들이 중심을 잡고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살퍼볼 부분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 이들이 12%와 22%이다. 이를 합치면 34%에 이르는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절에 예배예식서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각 교회들이나 기관이 배려해 주면 좋겠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두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교회 역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면서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절대적으로 생각해 왔던 주일성수의 금칙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후를 생각해서 너무 과도한 신학적 해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개 교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필요하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배려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도 마련해 개별적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성필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36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 코로나19와 교회의 과제들



글 조주희 목사  
(기윤실 이사, 성암교회 담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가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현실은 예배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태 속에서 세 가지, 조금은 불편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첫째는, 발 빠르게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있었다. 그 와중에 그렇게 결정한 지도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대상들을 폄하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둘째는, 반대의 현상인데, 모이는 예배를 계속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진정한 믿음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영상 예배를 결정한 대상을 비신앙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셋째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경고성 있는 압력을 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교계는 매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 교회의 의사 결정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대처가 아쉽기만 하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나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 또한 각각 독립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개별 공동체는 존중받아야 하며, 개별 공동체는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작용했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교회는 공동체라는 면에서 담임 목회자 한 명의 의사가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한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초대 교회가 할례 문제를 해결할 때, 한두 사람이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고 공회를 통하여 결정했다. 교회 역사는 공회의 권위를 중요시한다. 교단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공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존중이다. 어느 교회 공동체가 영상 예배가 합당한 길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반대로 모이는 예배 방식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결정을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세 가지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공동체 내부의 의사이고 그다음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의사, 그리고 마지막은 지역 사회와 정부의 의사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회 공동체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와 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 즉,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가 예배의 방식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나를 따르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의논합시다'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논의 대상에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 지역 사회와 정부도 포함된다. 교회 공동체나 교단이 적절한 수준과 방식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대상들과 의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up>1)</sup>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의 문제, 지역 사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지난 3월 1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위해 따라와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께 강구했다. 특히 방역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열감지기 운용, 개인 체온 체크, 매시간 교회 건물 방역, 주중에는 교회 건물 폐쇄, 예배자 전원 마스크 착용, 찬양대 활동 중지, 교회학교 영상 예배 운용, 좌석 간 적절한 거리 확보, 예배 시간 단축, 노약자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영상 예배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예배를 진행했다. 지역에는 이런 조치 상황을 게시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미 선제적으로 중단한 것들도 있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와 지역 사회와 의논 과정을 거친 후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카페, 도서관, 안부사역(밀반찬 제공 사역), 방과후교실, 토요일봄교실 등 모든 사역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주 3월 8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를 취소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 또한 교회 공동체와 지역의 상황, 교단의 권고, 그리고 정부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교회 공동체가 속고하고 지혜를 모은 결정이어서 모두가 잘 협력하며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1)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신학적이고도 목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환경인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는 과거의 지역 사회가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졌던 패러다임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선교가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 교회 사역 중단에 대한 대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회가 계획했던 모든 사역 일정들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각종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개발할 여력이 있는 교회들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한 교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Offline Church) 중심적 사고로 교회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온라인(Online) 개념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도구적인 활용 차원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양한 실험적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전문적이어야 하고 일부의 교회들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들이 활용 가능한 보편적인 수준의 사업이 절실하다. 지금의 세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콘텐츠 개발, 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 교회적 활용 방안, 실험적 프로그램 개발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의 과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한국 교회가 맞이할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먼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매우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 본질과도 관련된다. 그런 면에서 활발한 신학적 토론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예배 현실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신학, 문화, 윤리, 교회 밖 이해 등 다차원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해 본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비상 상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상황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전염병뿐 아니라 재난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별히,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를 염두에 두는 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할 연구들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를 여러 부분에서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sup>11</sup>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동참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_김현아 팀장

‘코로나19’ 감염과 방역에 취약한 대구/경북 지역의 이웃을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CLF), 좋은교사운동>은 긴급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 착한 이웃의 모범을 따라 이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요청 드렸고, 498명의 성도님들과 34곳의 교회/기관이 기꺼이 참여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모아주신 기금은 대구기운실에 전달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지원 예정)

이제 매일 확진자가 줄고 있고, 완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발생 62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4월 21일 기준)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먼저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며 소외된 이 없이 함께 위기의 시간을 극복하고자 한 그 마음과 실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모금내역과 지원현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시오.

## □ 개요

- 모금주관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CLF), (사)좋은교사운동
- 지원주관 : 대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 모금내역

- 모금 기간 : 2020년 3월 6일(금)~2020년 4월 17일(금)
- 총 모금액 : 125,658,570원 (개인 498명, 교회/기관 34곳 동참)



## □ 지원내역

- 지원처 :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소아암협회,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센터, 노숙인센터, 대구청년지원센터, 달구벌종합복지관 장애인지원
- 지원내용 : 마스크, 비타민, 과일, 쌀, 반찬, 온누리상품권, 미혼모 일거리연계, 근로소득상실 청년 긴급월세지원 등

현장의 소리

## 하나님나라 이곳에

노동육 활동가 (대구기윤실,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기독교체, 시민사회 등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장애인, 소아암 환자, 노숙인, 미혼모, 독거노인, 학교밖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모금을 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와 생필품, 도시락, 비타민, 과일 등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악해가면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지역 기관에 전화를 드리니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디테일에 강하다. 그게 저희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셨어요. 도시락은 많이 받아서 아이들 간식과 비타민이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기윤실과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에서 이렇게 많은 모금을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파악하고 지원하다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고 관심이 없던 곳을 알게 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가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나 봅니다.

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준 교회와 단체, 성도님들, 많은 자원봉사자들 통해 하나님나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아직 지원해줄 곳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긴급지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고 마음 모아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실**





##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2020년 봄,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뿌리를 둔 세 바이러스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년 더 강력한 형태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강제 무급 휴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취업 시장은 얼어붙었고 가까운 많은 분들이 지인들과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마음으로 함께하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방역대책을 내세웠지만 관계의 단절과 이웃과의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이웃을 돌보고 성도간의 관계들을 돌보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할 책임입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가까운 관계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 “챙겨주기”

- ✓ 마 스 크 챙겨주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노약자, 소외계층 등)
- ✓ 우 리 동 네 챙겨주기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기(동네 식당, 가게 등)
- ✓ 가 까운 사 람 챙겨주기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
- ✓ ( ) 챙겨주기 의료계종사자, 대학교 신입생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자발적으로 챙겨주기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관계의 단절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있더라도 그들을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정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 완화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올 겨울 다시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완전히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전 국민이 조심하고 지켜보아야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마음으로 함께하기’는 여전히 실천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있고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자발적불편운동, 함께 해주세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은 전국기윤실협의회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신청교회로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캠페인 포스터를 보내드리니 교회에 게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캠페인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겨주세요. 그 외 창의적으로 진행하시는 자발적불편운동이 있다면 기윤실에 귀뜸해주세요.

(cemk.org, 070-7019-3755) **기실**

# 날마다 부활!

글 오석진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예배학)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는 질문처럼, 교회에서 종종 "성탄절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부활절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 물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서와 기독교의 근본정신 및 역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 사건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써 진리와 생명의 길을 내셨을 뿐 아니라, 그 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께서 일찍이 공생애 시절에 말씀하셨던 가르침(마 16:24)에서도, 그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갈 2:20)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가르침 위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1차 증인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곧 '나의 부활'로 고백할 수 있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모임이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되었고, 그렇게 모인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처럼 예배와 교회의 시작이 부활에 근거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부활의 날인 '주일'(Lord's day)이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하면서 그리스도교 실천의 중심인 주일 성수의 전통도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 예배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Little Easter)로 기념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했던 만큼 부활절을 거룩하게 준비하여 맞고자 하는 노력도 생겨났다. 부활절 전 40일(주일은 제외)을 '사순절'(Lent)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부활절의 중요성은 더욱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제일 먼저 보름달이 뜨는 날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다. 그리고 이 날을 기준으로 그해의 모든 교회력 절기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해 삶의 기준점이 된다. 교회력의 모든 절기들은 각각의 점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진 시간의 흐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잔치는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교회는 부활 주일부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날(승천절)을 지나, 성령을 보내시어 몸 된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강림절'(Pentecost 또는 Whit Sunday)까지 50일의 기간을 '부활 절기'(Eastertide)로 지키며 살아간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과 최초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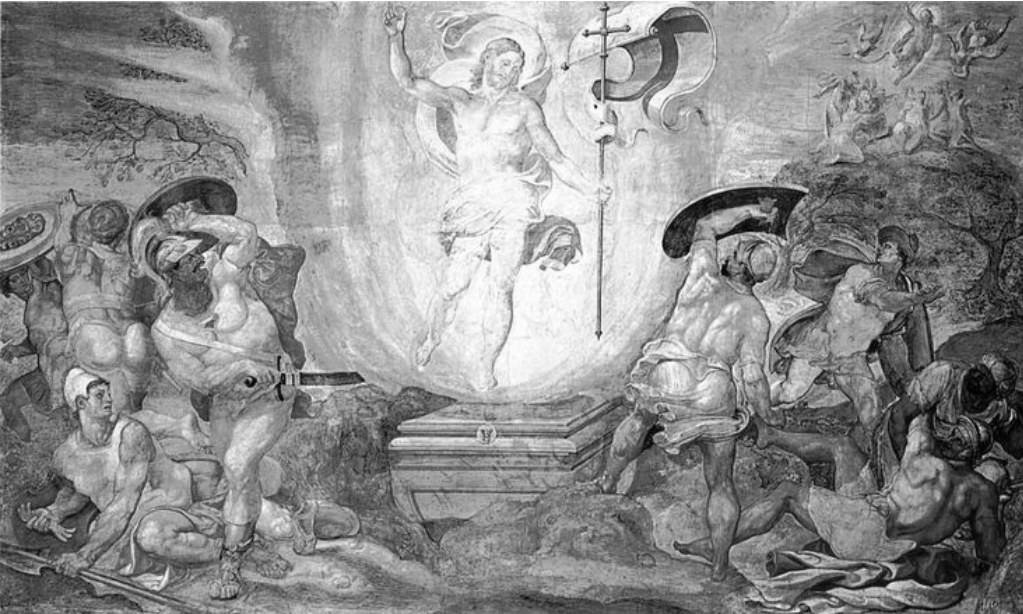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날까지 그런 정신의 맥이 전해진 대표적인 예가 사순절 기간의 '금식'(fasting)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을 머무신 것처럼,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던 삶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를 의존하는 경건의 훈련을 한다.

사순절의 40일 기간에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일은 철저히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식과 절제의 경건 훈련을 실행하면서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중간에 맞이한 주일에 갑자기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배 예식 가운데 몇 가지가 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한껏 높이기 위해 이 인사를 꼭 참아두었다가 부활 새벽에 비로소 터뜨릴 때의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것의 소중함을 그것이 부재할 때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던 이 한마디를 부활의 큰 즐거움 속에서 외침으로써,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맛보게 되는 열매의 달콤함을 경험한다.

이 감격과 환희를 어찌 부활 주일 단 하루에만 국한할 수 있으랴! 부활의 소식은 부활 절기 내내, 오직 부활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성도의 일상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선포되어야 한다. 할렐루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할렐루야의 부활 메시지로 새 힘을 얻는 시기가 바로 부활 절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에 교회에는 흰색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얀색으로 공동체 전체를 덮었다. 때때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금색을 더하기도 했다.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세례(baptism)는 초대교회 이래 부활 전야(Easter Vigil)에 이루어지는 절정의 예식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원작을 헨드릭 반 브로엑이 1572년에 다시 그린 것.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 있다.

오늘날 부활절과 함께 익숙해진 것으로 부활절 토끼와 삶은 달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서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변 문화로부터 근거도 불분명하게 유래한 것들이라 상업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많다. 이런 문화적 요소들의 경우는 부활의 정신에 입각한 재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신앙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재창조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활절이 교회 안의 축제를 넘어 세상을 위한 사건

임을 알리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문화적 요소들은 교회로 하여금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며, 드러나고, 살아내져야 하는 거룩한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sup>17</sup>

# 4.15총선과 공명선거운동

글\_최진호 간사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운실은 2019년 4월 26일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대략 1년간 공명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의 변화, 좌·우 이념 대립의 극대화, 코로나19로 최대한의 방역 안에 치러지기도 한 선거였습니다.

기운실은 2019년 6월 5일(수),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라는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의 포럼을 가짐으로 공명선거운동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최대한으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일지 들어보고, 앞으로 있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슈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명선거운동은 12월 16일(월),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진행한 <21대 총선, 기운실 공명선거운동 계획 발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선관위에 검토를 거친 “교회에서 종교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표 하였으며,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명선거운동은 크게 두 가지 갈래,

① 공명선거캠페인 ② 공명선거감시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공명선거캠페인은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성도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입니다. 관련하여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숙지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리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배포하였으며, 선거에 임박해서는 ‘공명선거 채점표’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해 평가해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TPV 캠페인(Talk, Pray, Vote) 전단지를 배포함으로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공명선거감시단은 특별히 교회에서 선거기간에 정치적인 행동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깊숙이 관여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선거 전 한달 가량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한 결과 몇몇 교회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여지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모 교단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의 내용을 적시함을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들을 발송하였으며, 모 교회 목사님은 교인(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설교 및 글들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적으로 교회와 목사님께 관련 행동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여지가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공문 및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4.15총선과 한국교회 기획대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4.15총선을 기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건강한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자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기윤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1회차 :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치참여와 선거, 손봉호 자문위원장-백종국 이사장
- ☛ 2회차 : 선거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혜신 이사-장희중 원로목사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 향후 4년! 일하는 국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정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선거기간 속에서 보인 혐오와 배제의 발언이 아닌, 포용과 관용, 공감이 넘치는 행위들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윤실



# 긴급좌담 : 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 할 것인가?

정리\_김현아 팀장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이 2019년 11월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 2~3월에 걸쳐 디지털성착취 피해자들 수십명이 검거되었고, 박사, 갓갓, 와이맨을 포함한 수많은 익명의 가담자들이 피해자(최소 74명, 이중 16명은 미성년자)들을 '노예'로 칭하며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를 일삼은 행태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신상이 공개된 '박사(조주빈)'와 가해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근 3~4년간 n번방 사건 이전에도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 시민조직의 신고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에 그 심각성과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윤실은 이 사건의 발단과 현상을 무겁게 인식하며 지난 3월 28일, 긴급 좌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발제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 발제 ① 디지털 성착취의 양상과 플랫폼의 책임 - 십대여성인권센터 T지원단 강 활동가

2017~2018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청소년성착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바 있습니다. 친구를 연결해주는 것을 취지로 생겨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은 성착취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들의 자유에 맡겨놓지만 말고 앱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내문구와 경고조치, 신고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해당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리스크를 사용자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서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SNS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플랫폼의 방만한 경영과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7-8강도의 지진보다 성착취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IT기업들은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의 서비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수준의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 ② n번방 관련 법률 규정과 제언 - 법률사무소 우리 우미연 변호사

n번방 관련해서 봐야하는 사항은 '의사에 반하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신체 촬영, 불법 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촬영할 당시 동의를 있었다 할지라도 배포할 당시에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청원을 반영해

추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의가 있든 없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처벌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발견 하면 즉시 삭제하고 배포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의무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n번방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기에 전시, 상영으로 인한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국회는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성행위를 협박/강요한 경우와 사진과 영상을 합성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단순가중주의를 채택한 외국의 경우에는 징역 100년, 50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실제 양형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포괄적 규정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처벌하는 것 그리고 아동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면접촉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여러 조건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봤을 때, n번방 사건은 집단강간과 다를 것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과 윤리의 차이는 확실하게 금지된 것과 암묵적으로 합의된 인간의 도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발을 막는 법의 개정과 집행은 물론, 우리 사회와 개인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후 종합대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동조하고 있기에 더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드는 가담자들의 심리, 외국 사례에서 찾아본 처벌의 수위와 해결 방식, IT기업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과 방안, 교회 내의 성범죄와 개선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성에 대한 납작하고 왜곡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이 건강한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는 TF가 결성되었고, 21대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여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판매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법적, 비윤리적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과 예방 등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안 대책의 마련과 적용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과정 가운데 과연 교회는 성범죄와 성윤리에 있어 어떤 성찰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자문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sup>고심</sup>

### 발제 ③ 디지털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과 입체적인 성교육 - 심에스터 작가

저는 미취학 아동부터 성년까지 함께 만나서 성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을 터부시하고 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성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회와의 관계 문화, 제도, 법 등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말하 여지지만, 실제로는 성=섹스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성을 터부시하는 데에는 종교, 교회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의 일상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은 음지에서 왜곡된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일탈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난과 편견이 두려워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충분히 교육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을 다시 평범하고 일상적인 위치로 가져오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삶과 관계의 일부로서 성에 대해 말하고 문화를 누리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또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가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소통과 시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윤리적투자운동을 소개합니다.

글\_최진호 간사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비'는 많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관심사, 가치관, 흥미와 취미를 그 사람의 소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 펀드 및 보험에 가입하는 것, 예·적금 통장 및 연금에 가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투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와는 상관없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지향하는 바도 알 수 있습니다.

'윤리투자'에 대해 처음 강조한 사람은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1760년에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에서 기독교 가치와 올바르게 부합되는 곳에만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이웃재산을 빼앗지 않으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곳에만 돈이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은 금전적인 수익 뿐만 아니라, 사회 임팩트 창출과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가 대두되면서,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윤실은 2019년 한 해 동안 총 여섯 차례 '윤리적투자운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방향점을 잡았는데,

- ① 윤리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통하여 바른 투자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 ②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의 행태를 비판함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이하 에티컬 1호)이 2020년 4월 23일 결성되었습니다. 에티컬 1호가 추구하는 윤리적 투자는 ① 공급사슬에 있어서 아동노동 금지, 오염/피해 물질 미사용, 갑질 예방 등의 의사결정 프랙티스, ② 조직운영 및 구성원 관리에 있어서 노동권 준수, 여성미차별 등의 프랙티스 ③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 환경적으로 무해함 등의 프랙티스 기준에 부합하거나 해당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신생기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 투자조합의 주요 운영사는 ㈜엠와이소셜컴퍼니이며, 기윤실에서는 손봉호 자문위원장, 김정태 이사, 이상민 본부장, 이천화 감사 등이 출자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윤리적 투자의 첫 번째 조합을 시작으로 윤리적투자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후속 펀드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라이 가즈히로는 "의지가 있는 돈은 사회를 변화 시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들을 통하여, 윤리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재정보고

2020년 01월 01일부터 3월 31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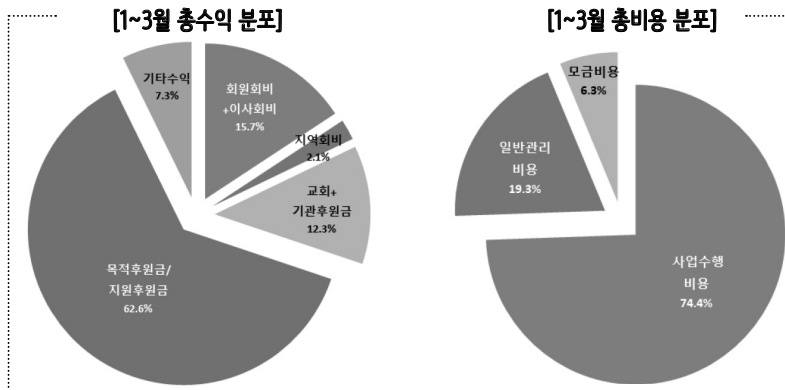
과 목	공익목적사업	
<b>I. 사업수익 ㉔</b>		<b>171,454,536</b>
1. 회비수익 (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32,995,000	
2. 일반기부금수입 (교회/기관후원금)	22,705,000	
3. 특정기부금수익 (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115,603,570	
4. 기타수익 (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150,966	
<b>II. 사업비용 ㉕</b>		<b>130,766,477</b>
1. 사업수행비용 (사업인건비, 운동본부/자치기구/협력운동 사업비 등)	97,352,561	
2. 일반관리비용 (행정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처운영비 등)	25,220,919	
3. 모금비용 (회원관리비, 소식지제작비, 지역회비전달금 등)	8,192,997	
<b>III. 사업외수익</b>		<b>13,255,396</b>
1. 노동부지원금	14,770	
2. 타기금전입	13,071,426	
3. 잡이익	169,200	
<b>IV. 사업외비용</b>		<b>-</b>
1. 유형자산폐기손실	-	
2. 잡손실	-	
수익 총계		<b>184,709,932</b>
비용 총계		<b>130,766,477</b>
<b>당기 순자산의 증감</b>	<b>53,943,455</b>	

\* 코로나19 긴급모금액 112,656,305원으로 특정기부금수익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모금 전달액은 51,600,000원으로 사업수행비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순자산은 53,943,455원 증가했습니다.

\* 2020년 3월 31일 현재 잉여금은 105,565,990원입니다.



\*비용 분류 주석

1. 사업수행비용은 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입니다.
3. 모금비용은 회원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 기부금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2020년 1월~3월 개인 후원자 명단

### 개인후원금 29,060,000 (591명)

강명길 강민봉 강병관 강석창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영안 강요셉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규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준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선여 고승표 고은정 고재길 고정한 공미자 공지태 공헌 박상배 박종철 박창대 구예리 권명희 권순홍  
권아현 권오재 권용태 권창희 권혁률 금은미 기세충 김강석 김경래 김경미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광환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대인 김동석 김동조 김동중 김두희 김령희 김만옥 김말수 김명은 김명찬 김문수 김미경 김미숙 김미혜 김만규 김민숙 김민아  
김병규 김병일 김봄이 김상규 김상범 김상윤 김상은 김상인 김상정 김상한 김선욱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봉 김성숙 김성웅  
김성천 김성태 김세진 김수희 김승섭 김신곤 김연기 김연수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아 김영철 김완진 김요열 김용미 김원섭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은이 김인빈 김인선 김인숙 김재균 김재환 김정미 김정백 김정욱 김정원 김정현 김정형 김정훈  
김종필 김종호 김주현 김준영 김준철 김지한 김지혜 김진우 김진표 김철성 김충환 김태식 김태환 김태훈 김하연 김학동 김학빈  
김하나 김현경 김현아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섭 김홍환 김효진 김홍식 김희숙 김희완 김희정 나영식 나영진 나중주  
나희량 남궁설 남성태 남재환 남제현 남준일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노치준 도중수 류선민 류은혜 류중우 맹경순 명호중 목광수  
문경환 문규 문규영 문덕암 문석윤 문정욱 문현주 민영운 박경라 박경춘 박경희 박기출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민선 박복배 박상돈  
박상호 박상홍 박서현 박선영 박선이 박성령 박성일 박세진 박수경 박수정 박수창 박승호 박영민 박원주 박윤정 박은미 박은지 박은하  
박의진 박재성 박재장 박재환 박정민 박정우 박정임 박제민 박제우 박종구 박종명 박종민 박종운 박종원 박종진 박주현 박지연  
박진욱 박진희 박찬기 박철 박태영 박택규 박판근 박혜리 박혜윤 박호웅 박홍래 박환승 방형애 배복희 배재수 배정운 배정주 배정호  
배종석 배지수 배진화 백운진 백인남 백종국 백주영 백지영 백현주 변현정 변희중 부상욱 서도원 서동진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임선 서한홍 서화진 서효정 석종호 설성호 성상현 성영은 성우경 손병철 손봉호 손상문 손영일 손용기 손은순 손은정 손진호  
손현성 손현화 손화철 송명숙 송병문 송성현 송성훈 송시섭 송연자 송인수 송준민 송철학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국원 신대희  
신명호 신수현 신영현 신은심 신은정 신진수 신창조 신태연 신희선 안계영 안보경 안선욱 안선자 안연희 안은상 안은정 안정은  
안학서 양낙홍 양민우 양영두 양인봉 양지혜 양희현 엄동환 엄현식 여동명 오동근 오동춘 오미영 오성만 오세란 오은석 오진선  
오창섭 옥성일 오상원 양보현 우미연 우창록 원연희 원영대 원종민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성오 유영신 유영준 유원욱 유인복 유재균  
유정윤 유정민 유지는 유창수 유해신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다혜 윤두선 윤민영 윤성우 윤신일 윤양숙 윤영석 윤태호 윤해균  
이교성 이국은 이근무 이금성 이금아 이기선 이기웅 이덕한 이동혁 이동환 이만동 이만열 이명자 이미진 이방욱 이병호 이병환 이상규  
이상민 이상철 이석형 이선화 이선희 이상근 이상진 이세령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아 이용운 이용훈 이운섭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원우 이월숙 이윤경 이윤정 이윤현 이은성 이은혜 이익용 이익현 이인택 이장규 이재만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우 이정은 이정화 이정희 이종규 이주환 이준복 이지욱 이진수 이천화 이철진 이충학 이태훈 이태희 이하정 이하연  
이혁재 이현숙 이형조 이화영 이희석 이희열 익명후원자 임미정 임성민 임소희 임영제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지웅 임진수 임태규  
자정화 장기화 장동민 장미혜 장민규 장서은 장영상 장윤희 장준혁 장창수 장혜경 전병국 전장덕 전종갑 전희숙 정경숙 정경애  
정경희 정규장 정규훈 정금영 정동혁 정명혜 정명환 정문희 정민경 정병오 정상복 정선우 정세열 정영미 정영호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훈 정중목 정철성 정현철 정호연 정화선 정화조 정희수 조무성 조병진 조성돈 조세준 조승희 조옥현 조용환  
조우철 조인형 조정미 조준호 조태례 조현영 조홍식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연식 진미자 차연주 차정아 채홍석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천수연 최경구 최경석 최경화 최광사 최규창 최동모 최병성 최병제 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영석 최영애  
최영혜 최우석 최용권 최원영 최윤선 최용 최인선 최인영 최정희 최종선 최종원 최지숙 최지혜 최진호 최현지 최혜경 최혜원  
추진영 추현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하현주 한규완 한민곤 한민승 한병선 한상호 한석환 한성준 한신영 한유식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한진영 한창희 허남 허성연 허효일 홍관수 홍대식 홍선희 홍인기 홍인중 홍일선 홍정진 홍종락 홍택주 황병규 황병일  
황선영 황성걸



## 후원 기관 및 교회 (63곳)

교회 |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정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광고산울교회 광주다일교회 공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대림교회 덕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목산침례교회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성암교회 세신교회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림제일교회 오희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뿔새들교회 중앙대학교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지구촌교회(분당) 청량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상교회 효성중앙교회 (54개)

기관 |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대주산업 법률사무소우리 보성글로벌(주) 예인법률사무소 (9개)

## 신규/재개 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9명) 김완진 맹경순 이은혜 최혜경 광주다일교회 성암교회 세신교회 신림제일교회 효성중앙교회  
2월(12명) 김병규 김종호 김지한 김하연 박재성 부상욱 안선자 이유경 이정우 정경숙 정경희 덕수교회  
3월(21명) 권일한 김민규 김성숙 김성웅 김정형 김지혜 서화진 안은정 윤다혜 이동환 이병호 이향연 임진수 장동민 정희수 조옥현  
최영혜 최원영 최지숙 광고산울교회 기윤실교사모임

##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합하여 드립니다. (지역기윤실 회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형욱 간사 070-7019-3755, mjtwo@naver.com

[후원안내] 기윤실 운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정기후원, 증액신청하기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후원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윤실 후원계좌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하나 109-228746-00104

\*문의전화 02-794-6200, 070-7019-3755 (문형욱 간사)



## 기윤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 매년 개최되는 사단법인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6개월 이상 후원회원)
- ▶ 분기별 소식지(우편)와 뉴스레터(이메일)을 통해 기윤실 운동과 재정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활동보고(02/10~05/01)

- 02/13(목)-03/13(금) 공명선거감시단 모집
- 02/17(월) [공개서신] 흥정길 목사님께
- 02/28(화)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 03/03(화) 17:00 공명선거운동 기획회의(화상회의)
- 03/06(목)-04/07(화) '코로나19 파헤치원'을 위한 긴급 모금
- 03/06(금) 13:30 '평신도의 상상력' 기획회의(화상회의)
- 03/10(화) 12:00 '4.15총선과 한국교회' 기획회의(교대역 인근)
- 03/10(화) 19:00 자발적불편운동 기획회의(화상회의)
- 03/13(목) 07:30 제2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3/16(월) [호소문]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시시오
- 03/16(월) 15:00 '4.15총선과한국교회 손봉호-백종국 대담촬영(기윤실 회의실)
- 03/01(월)-05/31(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봄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 03/18(수) 12:00 성서한국 활동가교육 기획회의(삼가지 인근)
- 03/20(금) 11:00 '4.15총선과한국교회 유해산-장희종 대담촬영(기윤실 회의실)
- 03/22(일)-04/15(수)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 03/27(목)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03/28(토) 16:00 '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온라인긴급좌담  
(기윤실 회의실)
- 04/02(목) 14:00 청년지원사업 기획회의(화상회의)
- 04/08(수) 10:00 기윤실 30주년사 기념자료집 편집회의(기윤실 회의실)
- 04/09(목) 09:00 청년지원사업 기획회의(화상회의)
- 04/10(목) 07:30 제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4/13(일) 16:00 청년지원사업 기획 회의(화상회의)
- 04/18(토) 14:00 청년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4/20(월) 16:00 청년지원사업 기획회의(화상회의)
- 04/20(월) 19:00 자발적불편운동 기획회의(화상회의)
- 04/21(화) 18:30 공명선거운동 기획위 미팅(교대역 인근)
- 04/23(목) 11:00 <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헤이그라운드 6층 회의실)
- 04/24(금) 10:00 청년심리상담 기획회의(기윤실 회의실)
- 04/27(월) 21:00 청년지원사업 기획회의(화상회의)
- 04/28(화) 07:30 <좋은나무> 편집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4/29(수) 15: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미팅(숙대입구역 인근)
- 05/01(금) [성명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일터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 활동계획(05/02~06/30)

- 05/07(목) 19:00 [온라인긴급좌담]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기윤실 회의실)
- 05/08(목) 07:30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화상회의)
- 05/15(목) 11:00 [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퇴직소득세 관련 기자회견(미정)
- 05/21(목) 19: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 회의(성서한국 회의실)



신입간사 인사.

글\_문형욱 간사

안녕하세요. 3월부터 기윤실과 함께하게 된 문형욱 간사입니다.

캠퍼스 시절 기윤실을 처음 접하고 그동안 먼발치에서 기윤실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도움 받다가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진로의 기로 앞에서 기독교 활동가라는 길이 저에게는 견고 싶은 좁은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윤실의 활동가 분들과 운동에 참여하시고 후원하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와 회원관리,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입니다. 아직은 세 가지 업무 모두 처음이고 적응해가는 중에 있지만 하루 빨리 적응해서 기윤실에 더욱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13)

하나님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음냉수와 같은, 시대의 필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잘 분별하며 해나갈 수 있는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년 전 캠퍼스 시절 읽었던 컬처메이킹(앤디크라우치.ivp)이라는 책에서 "가능성의 지평선"이라는 표현을 접하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에 중요한 개념이 되어 저를 형성해 왔습니다. 기윤실의 여러 활동을 통해 가능성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선한 문화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욱 드림

**전국 각지, 지역기윤실 소식**

☆ 부산기윤실

1. 내부토론회 (\*화상으로 진행)

- ▶ 날짜 : 2020년 4월 24일 (금)
- ▶ 주제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회에 주시는 말씀과 교훈
- ▶ 순서 및 패널
  - 철학 : 주광순교수 (부산대 철학 / 부산기윤실 공동대표)
  - 문화&목회 : 최병학목사 (남부산용호교회/ 부산기윤실 전문위원)
  - 경제 : 이대식교수 (부산대 경제학 / 부산기윤실 실행위원)
  - 국제정치 : 김진영교수 (부산대 국제정치학/ 부산기윤실 실행위원)

2. 독서모임

- ▶ 날짜 : 2020년 4월 27일 (월)
- ▶ 읽는 책 : 하나님나라를 상상하라 (제임스스미스)
- ▶ 발제 : 장종수 집사 (부산기윤실 연구위원)

**전국기윤실협의회 현황**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ktyhbg@hanmail.net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nohandsong@gmail.com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blanma@icloud.com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mento123@hanmail.net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iksancemk@naver.com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greatc@hanmail.net
	(21653) 인천 남동구 논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813호 담쟁이숲 꿈터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123kslee@hanmail.net
	(59712) 전남 여주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kyb0191@hanmail.net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정읍	정종인 실행위원장	cibank64@hanmail.net
	(56194) 전북 정읍시 총정로30 3층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comnot@hanmail.net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hsp0924@hanmail.net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LA	박문규 공공대표	email4lacem@gmail.com

# 기독교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다!

성경적인 신앙인으로, 공부하는 교사로, 깨어있는 시민이자  
운동가로 살아온 저자의 신실하고 정직한 삶과 생각에서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의 길을 찾다!



## 정병오 에세이

저자는 신앙과 삶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개혁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읽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신자로, 교사로, 교육과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그의 삶은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자라오는 젊은이들이 그를 만나, 그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길 바랍니다.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도움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기독교윤리학 교수

저는 오래도록 그를 겪으면서 도전받아온 것들을 독자들은 이 책 한 권으로 단박에 얻게 되었습니다. 참 부럽고 수지맞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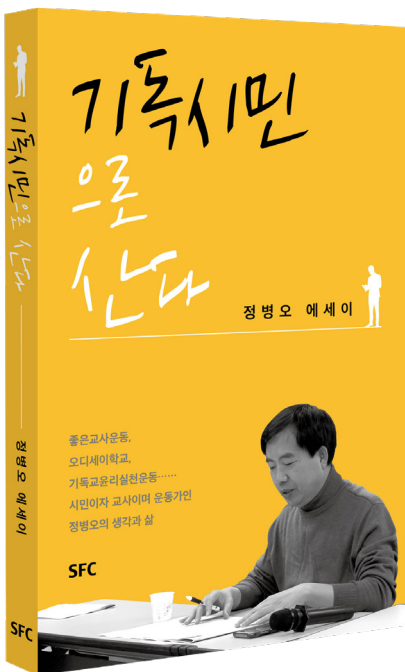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

그에게 사색의 기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교사로 제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쳐 온 분투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내 이야기처럼 편하게 다가옵니다.

**권연경**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이 책은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이 독자들에게 주는 자신의 여정으로 장식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배중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기독교인으로 산다

정병오 지음

130x205mm / 276쪽 / 13,500원